



### FOCUS NEWS

## Jiam International Conference: Development Economics Week



지난 9월 27일과 30일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주최 및 SK SUPEX 기금,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UK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후원으로 'Jiam International Conference: Development Economics Week'가 개최되었다. 본 국제 컨퍼런스에는 양현주 교수의 지도교수였던 David Weil(Brown University) 교수,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 그리

고 대학원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30일에는 대학원생 세션, David Weil 교수의 저서 및 연구발표, 개발경제학 분야의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연구발표로 진행되었다. 대학원 세션은 크게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석사과정 학생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 및 토론하였다. 이후 세션은 David Weil 교수의 'Land Quality', Albert Kim(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교수의 'Intergenerational Impact of Early Life Exposure to Trauma: Parental Exposure to the Korean War and Risk Aversion', Junichi Yamasaki(Kobe University)의 'From Samurai to Skyscrapers: How Transaction costs shape Tokyo', 정연하(성균관대학교) 교수의 'Does More Democracy Encourage Individualism?: Evidence from Women's Suffrage in the US'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발경제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의 최신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 2022년도 하반기 정책세미나 'ESG 현황과 과제' 개최



지난 11월 10일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대신경제연구소 주관 및 위더스제약 후원으로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정책세미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업의 ESG 평가를 투자 결정 등에 이용하는 현 ESG 구조의 지속

가능성 및 ESG 제도와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도영(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의 개최사, 박정수(서강대학교 경제대학) 학장의 환영사, 성대영(위더스 제약)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한국 ESG 연구소) 대표의 'ESG 평가기관 현황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김홍균(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ESG와 기업성과', 방문옥(머로우소 달리 한국지사) 상무의 '기관투자자와 ESG'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전현배(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를 바탕으로 손성빈(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수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신왕건(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안윤기(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참여하였다.

## 정국모 교수, 평산 연구 우수교수 선정



〈정국모 교수〉

정국모 교수가 2022년 평산 연구 우수교수로 선정되었다. 평산 연구 우수교수 수상은 평산 신동수 회장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의 연구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교원인사 위원회에서 매해 1명의 연구업적 우수교수를 펠로우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펠로우에게는 매년 1,000만 원씩 2년간 연구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국모 교수는 2005년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를 졸업하고

2006년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4년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중국 Henan University, 한양대학교를 거쳐 2019년부터 본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통화/금융 경제학이며 최근 기후변화의 경제학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European Economic Review,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등 다수의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 김경환 교수, 연구 석학교수 감사패 수령



10월 6일, 모교에 대한 사랑과 후배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보여준 김경환 연구 석학교수의 감사패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김경환 교수는 지금까지 경제학부 발전기금, 제페르트 남덕우경제관 및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건립기금, 도서관 발전기금, 서강사랑기금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였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김경환 연구 석학교수를 비롯하여 심종혁 총장, 김순기 대외부총장, 송태경 교학부 총장, 박정수 경제 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총장 접견실에서 개최되었다.

본교 경제학과 76학번인 김경환 연구 석학교수는 1988년부터 본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올해 8월 정년 퇴임 후 경제학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과 훌륭한 학식 및 덕망을 바탕으로 연구 석학교수로 임용되었다.

## 조장옥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신임회원 선출



〈조장옥 명예교수〉

조장옥 명예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 신임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7월 8일 (금) 14시 개최된 2022년 제2차 총회에서 조장옥 명예교수를 포함해 신임회원 4명을 선출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 (금) 서울 서초구 본원에서 신임회원에게 회원 증서를 수여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원은 분야별 학술단체로부터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뒤, 심사위원회와 부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회원이 되면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평생 지위를 누리고, 학술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을 받게 된다. 정원은 인문·사회과학부 75명, 자연과학부 75명 등 총 150명이다.

본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후 1994년부터 본교 교수로 재직한 조장옥 명예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경기변동과 경제 성장, 노동 등을 연구한 원로 경제학자이다. 특히 현대적 경기변동이론인 실물경기변동모형에 케인스학파의 경직성을 처음 도입하여 그 효과를 구명하였으며, 확률적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경기 변동의 비용이 다양한 경제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연구하였다.

## ‘서강경제대상’ 광노선 교수, 이완직 동문 선정



2022년 ‘서강경제대상’ 수상자로 이완직 동문(미도리얼코 대표, 좌측)과 광노선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우측)가 선정되었다. ‘서강경제대상’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수와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

지한 동문에게 주어진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5일 서강대 곤자가 컨벤션에서 진행되었다.

광노선 교수의 연구 분야는 거시, 금융 경제학이며 “Have the Free Trade Agreements Reduced Inflation Rates?”, “Asymmetric Effects of Financial Conditions on GDP Growth in Korea: A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완직 동문은 ‘미도리얼코’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시행, 부동산 컨설팅, 자산관리 등 부동산 업계의 여러 분야에서 ‘미도리얼코’의 발전에 힘써오고 있다.

## ‘M.V.P’ 팀,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대회 동상 수상



한국은행이 개최한 올해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안중은(경제 16), 정희운(경제 17), 장혜미(철학 18), 김수민(경제 20) 학생의 ‘M.V.P’ 팀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은행이 개최한 ‘2022 통화정책 경시대회’에는 전국 42개 대학에서 총 75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예심과 지역 예선을 거쳐 총 7개 팀이 결선대회에 진출했다. 시상식은 지난 9월

2일 (금)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M.V.P’ 팀은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와 발표를 바탕으로, 8월 기준 특히 ‘M.V.P’ 팀은 최근의 선거철을 고려하여 금리 인상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마치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처럼 발표하였고, 이 부분이 참신하다는 평가와 함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M.V.P’ 팀원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은행은 물론 KDI, 블룸버그, 통계청, 각종 연구원 등 많은 기관의 보고서를 읽었으며, 지도교수인 정국모 교수, 김영익 교수, 심지어 그레고리 맨큐 교수한테 메일을 보내 조언을 얻고자 했다. 이러한 적극성에 더해 꾸준한 스터디 활동과 철저한 발표 준비는 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 2022년도 행정고시, 경제학 전공자 7명 합격

2022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에서 본교 경제학 전공자(1, 2전공) 7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부문별로는 구연수(경제 12), 류현욱(경제 14), 허창혁(사회학/경제 16) 학생이 재경직에, 김휘제(경제09), 정원영(경제14), 정진성(사회학/경

제 15), 진영진(정치외교/경제15) 학생이 일반 행정직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번 행정고시에는 총 10,495명이 지원하였으며 본교는 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 2022년도 공인회계사, 경제학 전공자 24명 합격

2022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본교 경제학 전공자(1전공) 24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다솔(경제 11), 신준수(경제 11), 정도희(경제 12), 배은성(경제 13), 유창주(경제 13), 강동진(경제 14), 김희찬(경제 14), 이주영(경제 14), 최도현(경제 14), 최동선(경제 14), 박근희(경제 15), 오민지(경제 15), 황범식(경제 15), 김소진(경제 16), 김혜린(경제 16), 맹상열(경제 16), 박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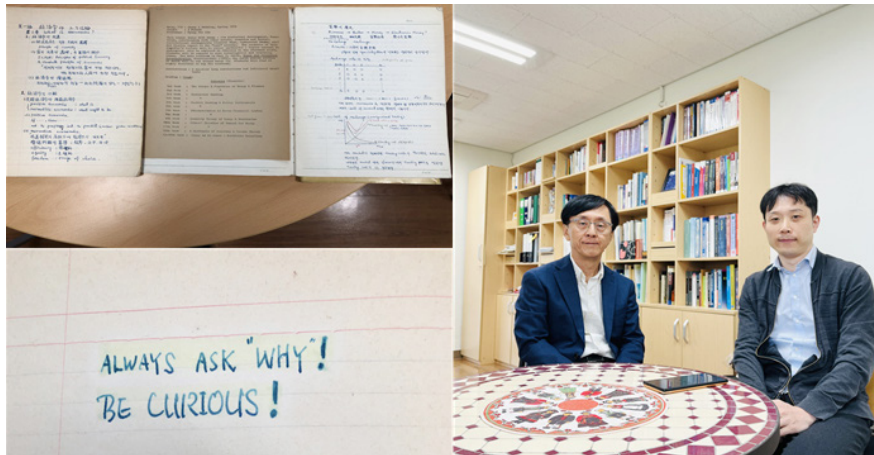
(경제 16), 정소희(경제 16), 최보윤(경제 17), 김지윤(경제 18), 박지우(경제 18), 송원근(경제 18), 장윤하(경제 18), 채희상(경제 19).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총 3,719명이 응시해 총 1,237명이 최종합격하였다. 본교는 이 가운데 7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LET'S  
celebrate

## 서강경제 가족을 찾아서: 김경환(경제 76)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명예교수·연구 석학교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직 교수님께서 퇴임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생이시고 교수로 34년을 봉직하신 후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정들었던 서강대학교를 떠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서강경제 가족들에게 근황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26일 정년 퇴임 기념 강연까지 마쳤는데 그 후 경제학부와 학교 당국의 배려로 뜻하지 않게 연구 석학교수로 3년간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대학원 부동산경제 전공 주임교수직을 계속하면서 학부 경제학원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외 대학, 학회와 컨퍼런스 기조연설과 특강, 좌장 등을 하면서 아직은 생활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시간 여유가 생겨서 골프도 자주 치고 재즈 피아노와 PT 레슨도 받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학창시절이 궁금합니다. 학창시절 교수님께서 서강대학교 수석 입학 및 수석 졸업을 하셨습니다. 학창시절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교수, 학자의 길을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경제학'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교수와 학자의 길을 선택한 데는 아버님 영향이 컸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님께서 책을 읽고 원고를 쓰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때는 막연히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께서 우선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해 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려면 교수진이 우수하고 미국식 커리큘럼으로 알차게 교육하는 서강대학교가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의 길을 꿈꾸고 있었던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해서 서강경제를 선택한 거죠.

진로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학부 시절 내내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태욱 교수님의 경제학원론1을 통해 처음으로 경제학을 접했고 김병주 교수님께는 화폐금융론, 국제무역론 등을, 이효구 교수님께는 외환론 등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경제학원론과 화폐금융론 노트와 강의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학과 거의 모든 강의에서 원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학에 필요한 전공 GRE 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유학 가서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조언에 따라 수학을 부전 공했습니다. 한편으로 4년 내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급을 받으면 범한서적, 범문사, 종로서적 등 외국도서 전문 서점에 들러 경제학 원서들을 사곤 했습니다. 외중에 경제학과 과대표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김병주 교수님께서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지 말고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한국은행에 가서 시야도 넓히고 경험을 쌓으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지원했고 필기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1980년 1월에 입학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연수를 거쳐 조사부에 1년 남짓 근무하면서 많이 배웠고 훌륭한 상사, 동료들을 만나 오랫동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다니면서 토플과 GRE를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와서 내친김에 미국 우수 대학원들에 지원했고 여러 학교에서 입학 허가와 장학금을 받아서 1981년 가을 학기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모두 다 서강경제의 우수한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 교수님께서 30년 넘게 서강에서 강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988년 가을에 조교수로 부임했을 당시에는 교수 수가 적고 책임시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경제학원론 1&2, 미시경제학1, 거시경제학1&2, 통계학, 경제수학, 계량경제학, 환경경제학, 재정학, 시장경제의 이해 특강, 도시경제학 등 학부 과목과 대학원 거시, 재정학, 도시경제학 등 많은 과목을 가르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전공인 도시경제학을 처음 소개하고 가르치면서 교과서도 집필했고 정년 직전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도시경제학을 개설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경험한 엄격하고 충실한 교육과 그에 대한 자긍심을 한참 후배들이나 학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의를 다해 강의를 준비하고 실행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연구자로서는 Weimer School이라는 도시경제학자들의 회의체의 펠로우로 선정되었고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연구소장으로서 개교 4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서강학파를 정리하는 글을 발표한 것과 경제인의 밤, 경제인의 날 행사에서 여러 번 노래를 불렀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 교수님께서 많은 대외 활동을 하셨습니다. 국내외 학회 회장도 하시고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실물 전문가로도 활약하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회 활동으로는 아시아부동산학회 회장으로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했고, 한국주택학회 회장으로 창립 20주년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미국 부동산·도시경제학회 이사와 주택 관련 두 개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도 지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제 전공 분야의 국책연구원이어서 맡게 됐고,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본 일이 없었는데 국토교통부 차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학교 교무처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이 있었기에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토교통부 하면 부동산 정책을 떠올리시지만, 국토부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경제부처이기도 합니다. 재임 기간 중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 담수화·제로 에너지빌딩·스마트시티·리츠(REITs)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을 선정하고 그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법률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

요한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입법을 준비하고 '부동산 산업의 날'을 제정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국제활동에 대해서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1984년, 1985년 여름방학 때 World Bank에서 일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강대에서의 첫 번째 안식년에 케냐에 본부를 둔 UNCHS(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라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했고 1996년 Habitat II라는 20년마다 열리는 도시 분야 UN 컨퍼런스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관심과 역량 부족을 아쉬워하면서 다음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년 후 2016년에 열린 Habitat III Conference에 제가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참여 기관들이 전 시판에서 가장 큰 공간과 알찬 내용물로 주목을 받았고 총회 결과물인 '새로운 도시 어젠다'에 '스마트 도시'를 제안하여 포함 시켰습니다.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 교수님께 서강경제란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의 뒤를 이어 서강경제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후배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포부 또는 덕담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경제학과 교수로서 강의와 연구뿐 아니라 정부, 국제기구, 해외 대학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좋은 스승님들, 선후배, 동료들을 만나서 많이 배우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서강경제는 제가 이룬 모든 것의 토대이고 서강대학교는 제 아버님과 두 누이, 제가 합해서 90년의 세월을 보낸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 각별합니다. 오랫동안 서강대학교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베풀어주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학과는 대내적으로 개교할 때부터 존재해 온 대표적인 학과이며 대외적으로는 서강학파라는 브랜드를 지닌 자랑스러운 집단입니다. 여기에 서강경제의 발전을 열망하며 물심양면으로 성원하는 든든한 동문들이 있습니다. 후배 교수님들께서 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활동에 열의를 다해 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교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대학이 명문대학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강경제가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배움터와 일터가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강 칼럼: 공직의 꿈을 품고 공부하는 이들에게



〈류현욱〉

안녕하세요.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재경직에 합격한 경제학과 14학번 류현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제학부 뉴스레터에 제 합격 수기를 실을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 행정고시를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몰라 수많은 합격 수기를 나침반으로 삼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를 시작한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 정도의 수험공부를 하였습니다. 남들처럼 이른 시간에 합격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제 공부기간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합격 수기가 누군가에게 1%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수험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측면에 관해 서술해보겠습니다.

먼저 수험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고시 생활에 대하여 혹자는 단거리 레이스라고 하고 누구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말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둘 중 어느 쪽으로 보든지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에 따라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기간에 합격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 하는 수험생활에서 무리하게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면 합격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점심은 어디서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은지, 쉬는 시간의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숙면 시간은 어느 정도로 취할지 등을 정하여 일정한 생활 방식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으로 합격하는 해인 올해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까지 독서실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점심 저녁은 신림동 고시 식당에서 한 시간 안에 해결하였으며, 공부는 매일 밤 열한 시 반까지 하고 집에 들어와 열두 시 반에 자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은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차차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 초반부터 길들여놓은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방식이 몸을 덜 지치게 해주고, 공부 양을 확보하

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별로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시 때에는 어떤 이론을 공부해야 하며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각 2차 과목의 강의를 따라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순환까지 강의를 다 들은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강의보다는 스테디나 문제 풀이를 많이 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실력이 불충분하다고 느껴 같은 과목의 강의를 한 번 더 듣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강사분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풀이 스타일이 다르므로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문제 풀이 역시 시중의 다양한 교과서와 연습 문제 책을 사서 풀어보는 것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의 응용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궤도에 올라 모르는 논점이나 유형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답안작성 스테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제를 어떻게 답안으로 시간 안에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영역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올해는 스테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일 답안작성 연습을 한 것이 실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한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 가슴이 답답할 때도, 반복되는 스스로와의 싸움에 지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힘은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좋아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주말에는 좋아하는 요리를 먹으면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거나 도립천에서 친구와 벤치에서 맥주 한잔하며 얘기를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은 역설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공부 방법보다도 더 수험생활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인 수험생활 도중에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찾는 것을 무조건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기나긴 수험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한 적도 많았지만, 수험생활 전반적으로는 결코 공직생활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열망으로 “나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저 자신에 대한 든든한 후원자이자 어떠한 의심도 떨쳐낼 수 있게 도와주었던 조력자였으며 껌껌한 수험생활에 한 줄기 힘을 밝혀준 친구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볼 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노력을 통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감히 자기 자신을 믿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2차 합격 발표 전까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최종합격 발표 날에도 혹시나 떨어지면 어쩌하나 긴장하고 있었으나 결국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다 보면 멀게 보이던 합격의 문턱이 어느새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5급 공채의 합격으로 달려가는 길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으로 여겨져 자신이 어디쯤인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항상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행정고시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라는 표현이 더 와 닿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루트는 없되,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산을 오른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결국엔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이 수많은 수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교수동정

◎ **곽노선 교수,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선정**



〈곽노선 교수〉

본교 경제대학 곽노선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연구지원을 받게 되었다.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은 중견급 연구자 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자의 학문적 역량, 연구 다양성 확보 및 연구촉진을 통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곽노선 교수는 비대칭적 통화정책, 통화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최적 통화정책을 주제로 2년간 연구지원을 받게 된다.

◎ **김진원 교수,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conomics Association'의 위원으로 선임**



〈김진원 교수〉

김진원 교수가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conomics Association'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conomics Association'은 Richard Arnott, Jan Brueckner, Andre de Palma, Kenneth Small 등의 명망 있는 도시·교통 경제학자들에 의해 2010년 설립된 학회로서, 매년 국제 학술대회와 Summer School을 개최함으로써 교통 경제학의 연구 결과를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원 교수는 Scientific Committee 위원에 선임되어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에 발표될 논문을 선정하고, keynote speaker 선정, 및 최우수 논문 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김진원 교수가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conomics Association'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conomics Association'은 Richard Arnott, Jan Brueckner, Andre de Palma, Kenneth Small 등의 명망 있는 도시·교통 경제학자들에 의해 2010년 설립된 학회로서, 매년 국제 학술대회와 Summer School을 개최함으로써 교통 경제학의 연구 결과를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원 교수는 Scientific Committee 위원에 선임되어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에 발표될 논문을 선정하고, keynote speaker 선정, 및 최우수 논문 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 **전현배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위촉,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선정**



〈전현배 교수〉

본교 경제대학 전현배 교수가 2022년 11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

문기구이다. 전현배 교수가 참여하는 혁신경제 분과는 규제개혁,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수립한다.

또한, 전현배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연구지원을 받게 되었다.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은 중견급 연구자 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역량, 연구 다양성 확보 및 연구촉진을 통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 **정국모 교수,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한국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SSK) 신규과제 선정**



〈정국모 교수〉

정국모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22년 인문사회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 과제는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로 총 연구 기간은 1년이다. 최신 통합기후모형과 우리나라 기후/거시변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국모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경제 현상과 포용적 경제정책” 연구단이 한국연구재단 SSK 사업 소형단계 연구단으로 선정되었다. 2025년 5월까지 3년간 1단계 소형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단계평가를 거쳐 최장 10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본 연구단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뉴노멀로 이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예측하는 범 사회과학 차원의 장기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허정 교수, '대형 명품강의 상' 수상,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선정,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번역본 출간



〈허정 교수〉

허정 교수가 2022학년도 1학기 서강대학교 '대형 명품강의 상'을 수상을 받았다. 본교는 2015년부터 대형강의를 대상으로 강의 평가가 높은 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1명 혹은 2명의 교수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정 교수는 2015년 첫해에는 '국제무역론' 영어 대형강의로 이 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경제원론 1' 대형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경제학원론1 수업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온라인 대형강의로 진행되었으며 347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또한, 허정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연구지원을 받게 되었다.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은 중견급 연구자 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역량 및 연구 다양성 확보 및 연구축진을 통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허정 교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다품목 사업체의 품목 조정에 끼치는 영향과 다 지역 기업 사업체들의 고용에 끼치는 효과를 주제로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허정 교수는 본교에서 국제경제학 영문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12판의 국제무역 분야에서 공동번역자로 참여하였다. 본 저서는 국제무역의 대가인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Marc J. Melitz 교수가 편찬한 책으로 이번에 출간된 12판 번역에서는 김승년(한국외대), 이연호(충북대), 최혜린(송실대), 허정(서강대) 교수가 참가하였다.

◎ 경제대학 업적평가 우수 교원 선정

매해 교무처에서는 단과대 별 연구업적, 교육업적에서 우수한 교원을 선정하는데 우리 경제대학에서는 상위 10% 우수 교원으로 교육부에서는 김윤정, 전현배 교수가, 연구부문에서는 안태현, 양현주 교수가 상위 10% 교원으로 선정되었다. 그 외에도 연구부문 우수 업적 교원으로는 박정수, 이진권, 허정, 허준영 교수가, 교육부문 우수 업적 교원으로는 곽노선, 안태현, 이성원, 허정 교수가 선정되었다.

◎ 연구년 소식

정재식 교수는 1년간의 연구 학기를 마치고 2022년 2학기에 복귀하였다. 송의영 교수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연구 학기 중에 있으며 2023년 1학기에 복귀할 예정이다. 정국모 교수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연구 학기 중에 있으며 2023년 1학기에 복귀 예정이다. Doruk Iris 교수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간 연구 학기를 갖게 된다.

◎ 퇴임 소식



〈이한식 교수〉

이한식 교수가 2022년 2학기 강의를 끝으로 정년 퇴임을 맞는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으로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Tulane University 조교수를 거쳐 1996년부터 본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한식 교수는 본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 힘써왔으며, 또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경제통계분과 위원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문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 학계 동문 소식

### ◎ 이우석 동문(지도교수 이한식)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임용

본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우석 동문이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2022년 9월에 임용되었다. 이우석 동문은 본교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2020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한식 교수의 지도로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로 선정된 바 있다. 이우석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 시계열분석이다.

### ◎ 신동한 동문(지도교수 전현배) : 산업연구원 연구책임자급 임용

본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동한 동문이 국내 최고 정책연구기관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KIET)의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급)으로 2022년 10월에 임용되었다. 신동한 동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조직론이며, 전현배 교수의 지도로 경제학연구 등 국내 우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 ◎ 유슬기 동문(지도교수 전성훈) : 산업연구원 연구책임자급 임용

본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슬기 동문이 국내 최고 정책연구기관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KIET)의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급)으로 2022년 10월에 임용되었다. 유슬기 동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조직론이며, 전성훈 교수의 지도로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 춘당 논문상을 받은 바 있다.

### ◎ 염민철 동문 : University of Southampton 부교수 부임예정

본교에서 경제학부 및 석사과정을 마친 후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염민철 동문이 University of Southampton의 부교수로 2023년 부임 예정이다. 염민철 교수는 본교 석사과정 당시 최인 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Macroeconomics와 Growth이다.

### ◎ 김희정 동문 : Concordia University 부교수 승진

본교에서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희정 동문이 Concordia University의 부교수로 2022년 6월에 승진하였다. 김희정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Inequality, Asset Choice, 그리고 Business Cycles이다.

### ◎ 마은성 동문 : 연세대학교 조교수 임용

본교에서 경제학부 및 석사과정을 마친 후 Texas A&M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마은성 동문이 2022년 9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마은성 교수는 본교의 석사과정 당시 광노선 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Macroeconomics, Monetary Economics 그리고 Financial Economics이다.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 경제대학 정기세미나

2022년 1학기부터 코로나 19의 실내 규제 완화와 함께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인해 최근 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대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요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 [Department of Economics Seminar Schedule Spring 2022]

Yi-Fan Chen(3월 8일)

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Labor Participation, Wage Income Inequality, and Heterogeneous Welfare Gains from Trade

황설웅(3월 1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Demand Shocks vs. Supply Shocks: Which Shocks Matter More in Income and Price Inequality?

정호용(3월 22일)

국민대학교

Bureaucrats and budgets in South Korea: Evidence for hometown favoritism

이문섭(3월 29일)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The Life Cycle of Products: Evidence and Implications

Kenan Kalayci(4월 6일)

University of Queensland

Algorithmic third-party advice in markets with complex goods

권순우(4월 15일)

Brown University

Inference in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under Monotonicity

박주연(04월 28일)

Kent State University

Trade and Establishments: Reevaluating Why Location Matters

김동우(5월 6일)

Simon Fraser University

IV Methods for Tobit Model

Huseyin Yildirim(5월 13일)

Duke University

Prize Allocation in Tournaments with Career Concerns

Doruk Iris(5월 17일)

서강대학교

Reciprocal Preferences and Expectations in International Agreements

김설아(5월 20일)

Albion College

A Consistent Nonparametric Test for Endogeneity

윤영노(5월 24일)

Wayne State University

Effects of Information Quality on Signaling through Sovereign Debt Issuance

이석준(5월 31일)

NYU Shanghai

Asset Safety versus Asset Liquidity

고아미(6월 21일)

Georgetown University

Marital Transitions, Housing, and Long-Term Care in Old Age

송동호(6월 22일)

Johns Hopkins University

The real channel for nominal bond-stock puzzles

**[Department of Economics Lecture Schedule Spring 2022]**

유동훈(3월 25일, 4월 1일, 4월 8일, 4월 15일, 4월 22일)

Osaka University

Topics in Macroeconomics: Information Frictions and Diagnostic Expectations

신용철(5월 19일)

University of York

The Stata Guidelines for Heterogeneous Panel Data Models with Spatial Dependence and Unobserved Factors

**2022 Jiam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I -****Exploring New Topics for Graduate Students**

권은지(7월 4일)

University of Cincinnati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ost-Disaster Policies for Spatial Sorting

김우건(7월 4일)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The 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Spending: Gravity Approach and Aggregate Implication

현정식(7월 4일)

HEC Montréal

Bound by Ancestor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Global Supply Chain Relationships

**2022 Jiam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II -****Exploring New Topics for Graduate Students**

김정빈(7월 13일)

NUS Business school

Patience Is Power: Bargaining and Payoff Delay

손성빈(7월 13일)

서강대학교

Finance Research and Its Impact on Stock Markets

**2022 Jiam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III -****Exploring New Topics for Graduate Students**

장영수(8월 17일)

University of Queensland

Credit, Default, and Optimal Health Insurance

염민철(8월 17일)

University of Mannheim

Status Externalities in Education and Low Birth Rates in Korea

김대순(8월 17일)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Firm Revenue Elasticity and Business Cycle Behaviour

◎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지 『시장경제연구』 제51집 2호 발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정기발행 학술지인 『시장경제연구』 제51집 2호를 2022년도 8월에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지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시장경제연구』 제 51집 2호

1. 한국 전세가을을 중심으로 임대 주택 시장을 악화시키는 요인 분석  
- 안영빈(부산대학교)
2. 개인의 이직 결정에 대한 요인 분석: 유동성 자산 및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중심으로  
- 최민섭(인하대학교), 정세은(인하대학교)
3. 원하청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하청기업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경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운중(전북대학교)

## 경제학부 단신

### 2023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선발

- 가. 목적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서강 경제의 교육 수월성 제고.
- 나. 선정 기준
- 4학기 ~ 6학기
  - CGPA 3.3 이상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의 Honors class 분반 한 과목 이상 이수자
- 다. 선정 결과 : 12월 선발 예정

### 2022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선정자

- 가. 이론경제학 : 이시영(20)
- 나. 재무경제학 : 이승주(19)

### 2022학년도 1학기 Honors Program 완수자

- 가. 이론경제학 : 김성환(16)
- 나. 재무경제학 : 김세희(16), 이진경(17)

### 경제학과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선발

- 가. 선발 기준
-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성적 (CGPA) 3.7 이상 학생
- 나. 선발 인원 : 41명(학기별 등록생의 5% 내외)
- 다. 지급 방식 : 증서와 상품(상품권)을 경제대학 행정실에서 배부

### 경제대학 동문회 장학생 선발

- 가. 장학생 선발기준
- Dean's List에 선발된 직전 학기 3학기~7학기 생 중 학기별 성적 상위 2명씩(이번 학기 휴학생 제외)
- 나. 선발인원 : 10명 + 장학금 이월자 1명
- 다. 장학금 : 학업 장려금 1,100만원 (인당 100만원)
- 라. 장학금 기부자 : 경제대학 동문회

### 2022학년도 2학기 경제인의 날 개최

- 가. 일자 : 2022.11.16 (수) 오후 6시
- 나. 장소 :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4층 경제학 카페도서관
- 다. 주관 : 경제학과 학생회
- 라. 행사 내용
- 학생과 교수 간의 만찬 및 친목 도모

- 주요 경품 : 맥북프로 13인치, 애플워치 SE, LG 코드제로 로봇청소기, 소니 헤드폰, 솔리스 커피머신, 화장품세트, 이도 먼기 세트, 햄 세트, 김 세트, 라면, 김치 상품권 10만원권

- 마. 후원 : 경제대학 동문회, 김환균(아셈투자자문대표, 경제80), 임세준(변호사, 경제91), 동구바이오제약(OLP 동문), 김영근(이도 대표, 경제83), (주) 대상(김홍균 교수 섭외)



### 2022년 경제대학 동문 선배와의 만남

- 가. 일자 : 8월 17일, 8월 20일
- 나. 장소 :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02호
- 다. 행사 내용

- 경제대학 내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학생의 취업 및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동문 선배와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 08.17, 안소은 동문(KB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주식시장 애널리스트), 재학생 25명 참석
- 08.17, 유경우 동문(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재학생 24명 참석
- 08.20, 익명 동문(KB증권 IB 채권), 재학생 26명 참석
- 08.20, 김병욱 동문(포스코건설 재무팀), 20명 참석



### [경제대학원 G-EnH 최고위과정]

#### G-EnH (글로벌윤리준법건강 최고위과정) 제 16기 수료식

- 가. 일자 : 2022.09
- 나. 장소 :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01호
- 다. 수료 인원 : 30명

## 경제대학원 소식

## 제59회 학위수여식 개최

- 가. 일시: 2022.08.17(수) 오후 4시  
 나.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01호  
 다. 학위수여자 : 총 31명

전공	인원
공공경제	3
공공의회경제	1
국제경제	1
금융경제	8
부동산경제	15
인공지능경제	3
합계	31

## 2022학년도 후기(64기) 신입생 등록 현황

- 가. 지원 91명  
 나. 합격 46명  
 다. 최종 등록: 45명(신입생 44명, 편입생 1명)

## 64회 신입생 입학식 &amp; 오리엔테이션

- 가. 일시 : 2022.8.20. (토) 16:00~21:00  
 나. 장소 : 소노캄 고양 호텔  
 다. 참석인원 : 총 90명(신입생 45명, 재학생, 교수, 직원 등)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 일반경제학 - 공공의회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노동경제 *4학기 : 인공지능경제전공 *4학기 : 부동산경제전공 *4학기 : ESG경제전공	00명

-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라. 전형일정

구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정 포함)	비고
원서접수	2022.10.24.(월) ~ 2022.11.3.(목)	2022.11.28.(월) ~ 2022.12.8.(목)	인터넷만으로 24시간 접수 접수사이트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서류제출	2022.11.04(금) 17:00 까지	2022.12.09.(금) 17:00 까지	제출서류 : 입학 원서, 출신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재직자인 경우) 제출처 : 경제대학원 우편 및 방문 접수
전형일시	2022.11.11(금) 18:30 부터	2022.12.16(금) 18:30 부터	면접 전형일 1일 전 ZOOM 접속 주소통지 수험생 개별 문자 (SMS 서비스)로 통지 예정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 가능)
합격자발표	2022.11.18.(금) 15:00 예정	2022.12.23.(금) 15:00 예정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econ.sogang.ac.kr
등록금 납부	2023.1월 초 예정		상세 납부 일정 추후 공지 예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23.2.25.(토) 예정		진행 방법 혹은 행사 장소 등은 추후 공지 예정 (교과 과정 일부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본 전형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프로그램 전형과 별개임.

##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 64회 신입생 입학식 &amp; 오리엔테이션



지난 7월 14일(목) Opinion Leaders Program (OLP) 24기 수료식이 본교 계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1층 101호에서 개최되었다. 박정수(경제대학원장), 경제대학원 교수들, 성대영 전 OLP 회장, 그리고 민원표 OLP 사무총장이 24기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OLP는 서강대 경제대학원과 전국 경제인연합회의 협의 때문에 언론인들과 기업인들의 경제 재교육을 위하여 2002년 9월에 개설되었으며, 24기에서 35명이 수료하여 현재까지 총 1,05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날 참석한 수료생들에게는 한 학기의 결실을 담은 수료패가 수여되었으며, 특히 성실한 참여가 돋보이는 원우와

운영 과정에 공로가 큰 원우에 대한 특별 시상도 뒤따랐다. 또한, OLP 24기 자치회(홍종호 회장)에서 본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24기 홍종호 회장은 박정수 경제대학원장에게 발전기금 기증서를 전달하고, 서강학과 후학 양성에 뜻을 함께하였다.

이날 수료한 24기 원우들은 매주 목요일 정규 강의 및 합숙 세미나, 부부특강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던 한 학기를 되돌아보며, 수료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였다. 향후 OLP 정회원이 되어 주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OLP Journal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 OLP 과정 소개

OLP 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의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 동문 동정

- 이상돈 동문(73 경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신임 사장 내정

이상돈 동문(73 경제)이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신임 사장에 내정됐다. 유암코는 NPL(부실채권 부문) 시장 1위, 구조조정 투자 선두 기관으로 평가되는 곳으로 지분은 신한, 국민, 하나, 기업, 우리, 농협, 산업은행이 각 14%, 수출입은행이 2%이다. 이상돈 동문은 외환은행에서 무역센터지점장, 강남기업영업본부장,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자본시장영업본부 부행장 등을 지냈다.

- 황인성 동문(81 경제), 충북연구원장에 임용 내정  
황인성 동문(81 경제)이 충북연구원장에 임용 내정되었다. 충북도의회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황인

성 동문은 서울 양정고등학교,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장,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등을 지냈다.

- 손영식 동문(81 경제), 신세계 사장으로 승진  
손영식 동문(81 경제)이 2023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신세계 부사장(대표이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손영식 동문은 1987년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해 상품본부장, 패션본부장 등을 거쳐온 상품 기획 전문가로 꼽힌다. 2016년부터 신세계디에프 대표로 4년간 재임하였고 신세계 대표이사 상품본부장을 거쳐 사장으로 승진했다. 손영식 동문은 본교에서 경제학 학사, 연세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 후 신세계

상품 본부장 부사장보, 신세계 패션본부장 부사장보, 신세계디에프 사업 총괄 겸 영업담당 부사장,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신세계 대표이사 상품본부장 역임하였다.

**- 이홍복 동문(84 경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 본부장에 임명**

이홍복 동문(84 경제)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경정 사업을 담당하는 경주사업총괄본부장에 임명되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가진 이홍복 동문은 앞으로 2년 동안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경륜·경정 사업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이홍복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채 1기로 입사하여 기금운용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경영혁신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 김익훈 동문(87 경제), 이지무브 대표이사 선임**

김익훈 동문(87 경제)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인 (주)이지무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지무브는 현대차그룹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공익법인들이 주주로 참여한 장애인용 복지차, 전동차, 보조기기를 제조·유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김익훈 동문은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 상용차사업, 전략기획, 해외 마케팅, 해외주재원, 경영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다.

**- 이훈 동문(88 경제),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부문장 내정**  
이훈 동문(88 경제)이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부문장(CIO)에 내정되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훈 동문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를 KIC에 통보함에 따라 KIC는 이 동문을 새 CIO로 선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훈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을 거쳐 2014년 KIC가 리서치센터 설립 당시 KIC에 합류했다. 이후 KIC 자산배분 팀장과 운용전략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미래전략본부장을 지냈다.

**- 유재준 동문(91 경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승진**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부이사관) 유재준 동문(91 경제)이, 고위 공무원 나급 직위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유재준 동문은 경북도와 서강대를 나와 2000년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유재준 동문은 제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잠실세무서장, 국제청장 정책보좌관, 국제청 조사분석과장, 국제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제청 심사1담당관, 국제청(세종연구소 파견),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 이상욱 동문(경제대학원 1기), 농협대학교 총장 선임**

이상욱 동문(경제대학원 1기)이 농협대학교 총장에 선임되었다. 이상욱 동문은 순천고와 농협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모교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농협대학교 졸업 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촌자원개발부장, 홍보실장 등을 거쳐 농협경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 김영주 동문(경제대학원 15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의원 김영주 동문(경제대학원 15기)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전임자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은 현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김영주 동문은 서울신탁은행 실업팀 소속 농구 선수로 3년간 활약한 뒤 은행원으로 전직해 노동조합 간부를 거쳐 여성 최초로 전국금융노조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19대~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내리 당 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대학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대학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대학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경제학부,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22.03.01.~2022.8.31)

학부 동문	권용재, 김상수, 문용호, 유경윤, 정진화
교직원	김경환, 김영익, 김종화
서강의 벗	김준석, (주)국전약품,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대학원	이승중

##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